

민수기

광야가 알려준 대답 *Ab initio* "from the beginning"

왕대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구약학을 대표하는 구약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이다. 그의 강의와 글은 학자처럼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이야기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성경을 분석하는 그의 강의는 철저하게 학문적이면서도 신앙과 유리되지 않았기에 쉽게 풀어설명하는 그의 학문적인 이야기들까지도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여러가지 비평 방법들이 있는데, 커다랗게 성경을 통시적 Diachronic 으로 보는 방법론과 공시적 Synchronic 으로 보는 방법론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통시적 성경 연구를 대표하는 방법론은 역사 비평 방법론 Historical Criticism 과 그 하위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본문 비평 방법론 Textual Criticism, 자료 비평 방법론 Source Criticism, 양식 비평 Form Criticism, 전승 비평 Tradition Criticism이 있다. 이 방법론들의 공통점은 성경의 발전 과정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 발전 과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석하거나, 아래로부터 위로 추적해 나아가는 과정 모두가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와는 다르게 공시적 성경 연구는 하나의 책 (예를 들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 을 큰 문학의 단위로 보거나, 그 책에 담겨있는 작은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고라의 반역, 발람의 이야기 등등) 안에서 일련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구조 안에서 성경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교훈과 의도를 찾아내는 방법론이다. 이런 부류의 비평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은 문학 비평 방법론 Literary Criticism 과 그 하위 범주에 굳이 분류할 수 있는, 편집 비평 방법론 Redaction Criticism, 정경 비평 방법론 Canonical Criticism, 수사학 비평 방법론 Rhetorical Criticism, 서사 비평 방법론 Narrative Criticism 등이 있다. 이런 문학 비평 방법론이 역사 비평 방법론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원문 Urtext 을 찾아가려는 작업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정경 Canon 안에서 그 정경이 주고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는 것이다.

왕대일 교수의 강의는 주로 정경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성경' 안에서 성경을 구성한 편집자(R)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었는가가 그가 추구하던 성경 읽기였다. 그러므로 그는 정경으로 엮어진 성경의 구조를 살피고, 그 구조 안에서 핵심적인 교훈과 의도를 찾아는 작업을 즐겨 사용하였다.

필자는 왕대일 교수의 회갑기념 논문집의 원고를 준비하며, 이 글이 오늘날의 평신도들과 교회를 위한 민수기 해설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왕대일 교수처럼 처럼 민수기의 틀걸이를 찾아보고 민수기가 오늘의 독자들에게 주려는 메세지를 찾아보고자한다.

'민수기'라는 이름

민수기 두루마리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미드바르" במדבר 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광야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름만으로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비롯하여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 칠십인역(LXX)을 비롯하여 라틴어 성경(Vulgata), 영어 성경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히브리어 두루마리 '베미드바르'가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오경의 네 번째 책을 부르는 성경 역본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어 성경의 '아리스모이' Ἀριθμοί, 라틴어 성경의 '누메리' Numeri 라는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번역들이 제2차 성전시대에 유대인 랍비들이 책을 부르던 말 '후마쉬 하프쿠담' חומש הפקודים 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후마쉬'는 '오경'을 부르는 제2차 성전 시대의 말이고, 그 오경 중에서 '프쿠담'은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지던 다섯권의 책 중에서 네번째 책을 '후마쉬 하프쿠담' 이라고 부른 것은 이 두루마리의 1장에서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서만 등장하는 פקד (소집하다, 계수하다, 통계를 내다)라는 말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 계수 이야기의 특징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후마쉬 하프쿠담'의 그리스어식 표기, 라틴어식 표기인 Ἀριθμοί와 Numeri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우리말 성경 중, 오경의 네번째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확정한 것이다.

민수기를 구성하는 전통들

전체 오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민수기가 어렵게 생각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오경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율법,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른 네 권의 책들과 내용면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에서조차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얹혀있다(벨하우젠은 이 전통들을 JEDP라는 이름으로 나누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 memory 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으로 전해지고 기록되었다. 이런 다양한 기억 memory 과 전통 Source 또는 Tradition 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고백과 역사 경험의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수집 collect 되어 졌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시점은 북왕국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Harvard School, 요시아의 종교개혁 Harvard School, 남왕국의 멸망과 포로기 Götingen School 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학파 Scandinavian School 의 학자들을 제외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의 역사이해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오경(Torah literature)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를 거쳐 주제별, 신학별로 모아져서 하나의 책(The Book of Torah)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오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체로 동의를 한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하고, 오경의 다른 책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한 혼란스러움은 조금 이해가 된다. '민수기'라는 책이 하나로 엮여지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서로 다른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록들(J, E, P 의 신학들이 투영되어 있는 서사적인 이야기, 율법들, 인구 계수의 기록들, 광야 유랑 도시들의 명단, 제의 규정, 전쟁 이야기, 시, 축복문)이 '광야'라는 공통의 공간적 배경 아래에서 R에 의해 한데 묶여졌기 때문이다.

R은 기록자(Writer 또는 Author)가 아니라, 수집가(Collector)에 가까운 편집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R의 역할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또는 전해진) 역사 기록들을 잘 엮어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R은 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기억과 기록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각각의 전통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지라도, 그것 중의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억과 기록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보존할 수 밖에 없었다(M. Haran). 그리고 R은 그 전통의 '차이'들을 자신의 문학적인 틀결이 안에서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민수기의 내용과 구조

민수기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1장)로 시작해서, 진을 형성하고 진군할 때의 순서(2장), 레위인들의 역할(3-4장),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는 율법들(5-6장), 열두 우두머리들 וְשֵׁנֵי יִשְׂרָאֵל 이 드릴 헌물(7장), 레위인들의 정결예식(8장), 두번째 유월절(9장), 이스라엘의 행진 규정(10장),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내린 하나님의 징벌과 칠십장로의 선출, 그리고 미리암의 벌(11-12장), 가나안 땅의 정탐(13-14장),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안식일에 일한 사람(15장),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16-17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몫(18장), 정결예식의 방법(19장), 가데스로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생긴 일(20-21장), 발람(22-24장), 브올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25장), 두번째 인구조사(26장), 슬로브핫의 딸들의 재산분배와 후계자 여호수아(27장), 하나님의 절기들(28-29장), 서원의 법률(30장), 미디안과의 전쟁(31장), 요단 동쪽에 정주하는 지파들(32장), 이집트에서 모압까지 지나온

경로(33장), 요단 서쪽의 경계(34장), 레위인들의 성읍(35장), 시집간 여인의 유산문제(36장)의 이야기로 끝난다.

학자들은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어 놓는다. 시내 광야-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모압광야 (1:1-10:10, 10:11-22:1, 22:2-36)에 이르는 지리적인 구분에 따른 틀을 제시하거나 (M.D. Cassuto),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1-19, 20-36)를 중심으로 만든 틀걸이 (M.Z. Segal), 옛 세대의 소멸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1-25장, 26-36장) 이라는 틀을 제시하거나 (D.T. Olson), 행진 준비와 본격적인 행진(1:1-10:10, 10:11-36:13)이라는 틀걸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R.P. Knierim). 심지어 민수기 안의 내용에 근거해서 작은 구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육경'(Hexateuch)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거대한 교차 대구 구조(Chiasm)를 만들어 내어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출 15:22-24:18)를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J. Milgrom).

이런 틀걸이를 만드는 작업을 단지 민수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창의성이 만들어내는 작업들 중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학자들이 문학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이유는 '민수기' (The Book of Numbers) 편집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 R의 시대에 까지 전해진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기록들을 R이 '민수기' במדבר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책(두루마리)로 엮을 때, R이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의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생활의 교훈과 의도를 찾는 작업이라는 말이다. 필자 역시 '민수기'라는 이름을 단서로 민수기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이 구조 안에서 민수기가 주고자 하는 메세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로의 전환

A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	1:1-4:49
B 율법 규정들	5:1-10:10
C 행군 (백성들의 불평과 징벌)	10:11-21:9
D 요단 동쪽에서 벌어진 전쟁들	21:10-35
E 역사회상 (발람과 바알브울)	22:1-25:18
A'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의 인구조사	26:1-65
B' 율법 규정들	27:1-30:16
C' 행군(전쟁 승리)	31:1-54
D' 요단 동쪽 지파	32:1-42
E' 역사 회상과 이스라엘의 유산	33:1-36:13

민수기에서 조사된 이스라엘 회중의 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세 이상의 남자들이다(민 1:3; 26:2).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가 두번에 걸쳐서 행하여 지는데, 그 첫번째는 출애굽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루어졌다 (민 1:1). 첫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일세대의 인구조사였다. 하나님은 출애굽 일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복을 주었다(민 6:22-27). 하나님이 준 율법과 복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헌물과 율법의 준수였다(민 7:1-10:10).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행군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불평을 시작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며, 약속의 땅 앞에서 원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던 율법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였다. 그러나 R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단지 인간처럼 화내고, 그 성냄으로 자신의 기분을 풀어내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레위인들에게 정결예식의 규례를 주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굽히지 않으셨다(민 11:1-21:9). 배반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주었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계략마저 발람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다(민 22:1-24:25). 그러나 이스라엘은 싯딤과 브올에서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방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것이다 (민 25:1-18). 하나님은 격노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일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였다 (민 26:65). 그리고 새 세대를 시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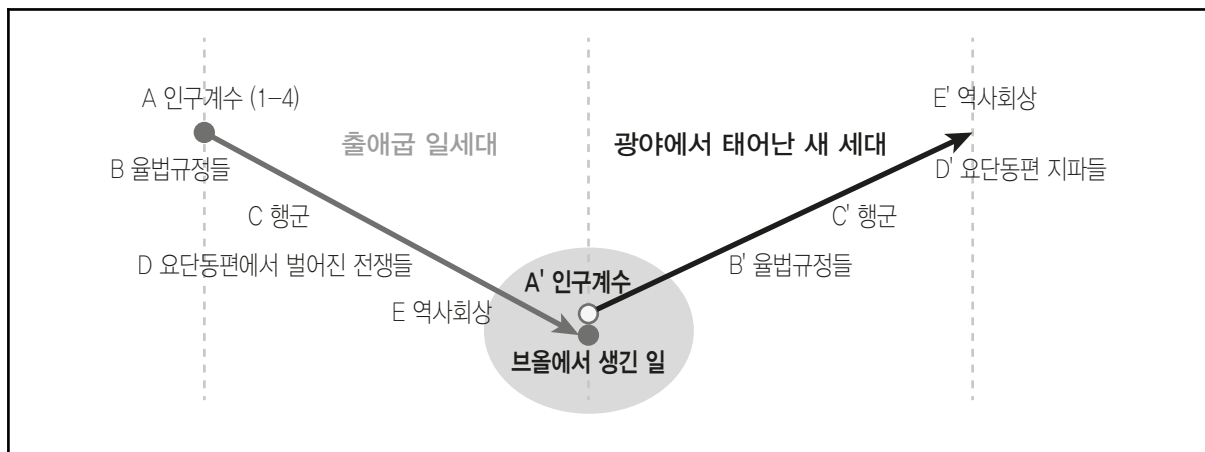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생활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의 연속이었다(민 11-25). 11:1로 시작하여서 11:33-34; 14:36-38; 15:35-36; 16:27-33, 35; 17:11-15; 20:1,23-29; 21:6; 25:6-15에는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른다. 출애굽 일세대에게 광야는 가나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죽음의 땅이었다(A. Leveen).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파라오의 노역과 압제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제시하는 민수기의 틀걸이는 출애굽 일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반복구조(Repetition)로 정리하면서 이 두 세대의 이야기를 병렬시켜 대비하는 것이다(L.R. Bailey).

22장부터 25장에 이르는 발람과 바알브올의 역사 회상은 R이 J, E, P의 이야기를 한데 엮어 출애굽 일세대의 광야의 삶을 다시 조명하면서 이 질문들에 답한다. 발람은 소위 말하는 '예언자' 'נביא' 나 '선견자' 'רוֹאֵה' 가 아니다. 민수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은 고대 서아시아에 흔히 있었던 복채를 받고 기인한 일을 하는 '점술가'나 '마술사'에 불과하다(M.S. Moore).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받고 돈을 준 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점술가 Mantic prophet 에게 직접 사자(messenger)를 보내어 눈으로 보게 하여 주고(민 22:21-35),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민 23:4,16; 24:2).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번에 걸쳐 축복하게 한다(민 24:10). R이 뒤돌아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록 온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일지라도, 이방의

점술가에게 까지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이스라엘에게 복 주려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야 어떠한 간에 자발적으로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바알브올에 가담하였다. **R**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일세대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R의 눈에 비친 출애굽 일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매우 분명하게 대비된다. R은 출애굽 첫 세대에서 새 세대로 전환하는 E-A'에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반복 구조의 이야기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R의 눈으로 재구성된 새 세대는 출애굽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세와 '여호와와 명령대로' (민 33:1-2) 차곡 차곡 걸어갔던 역사였다. 직접 지나갔을 도시들, 그리고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그 도시들의 명단들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이 도시들의 명단은 단지 '도시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하였던 과거였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증거였다. 그리고 출애굽 일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기업들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와 심지어는 여인들까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R의 눈에는 출애굽 일세대인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말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이었다.

시내산의 율법이 무너졌을 때



이전 장에서 필자가 제시한 민수기의 구조는 반복(Repetition)이었다. R은 J, E, P의 전통을 한데로 묶어서 A-B-C-D-E-A'-B'-C'-D'-E'의 반복 구조를 만들었고, 반복되는 두 세대의 이야기에서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E-A'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민수기 25장과 26장을 그 전환점으로 삼았다. 민수기

25장은 출애굽 일세대들이 광야에서 벌인 최악의 정점이자 그 세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건이고 26장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마치 출애굽 일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인구를 계수하는 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출애굽 일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흥망성쇠의 전환점이 되는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לזנות ויצמד ישראל לבעל פעור 한 일이다. 이 두가지 사건은 돌처럼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은 단지 '성적인 결합'이라는 혈통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의 민족이 아니었다(출 12:38).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 두번째의 돌판(십계명)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출 34:15-16). 비록 이 돌판에서는 '모압 여인들과의 결혼' 또는 '미디안 여인들과의 결혼'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 여인들에 의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출 34:16) ולקחת מבנותיו לבניך וזנו בנותיו אחרי אלוהיהן והזנו את בניך אחרי אלוהיהן

(민 25:1b) ויחל העם לזנות אל בנות מואב

출 34:16에서는 '이방인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게 되면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뒤쫓아 섬기듯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그 여인들의 신들을 뒤따라 섬길 것이다'(사역)라고 경고하고 있다(J). 출 34:16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 י'זנו'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 25:1-3에서는 J의 신학과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R은 이방인의 딸들과의 결합을 단지 육체적인 결합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R은 그것을 '음행'으로 규정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민수기 25장에서 R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י'זנו)에 대한 J의 바알브올 이야기를 25장 서두에 배치하여 J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이 경고했던 문제는 싯딤에서 현실화 되었다.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 가담' ויצמד ישראל לבעל פעור 한 일이다(민 25:3). "바알 브올에 가담하다"라는 말은 브올 땅(민 23:28)의 바알을 따라 "그 신을 섬긴다"는 말이다. 신 3:29에서는 이 지역을 '벧브올' בית פעור이라 말하는데, 이 지명으로 보아서 브올에는 이방신의 산당 또는 성소가 있었음직하다(R.D. Nelson). R은 발람도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민 22-24)가 이스라엘 스스로 그 땅의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재앙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였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두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이 경계하였던 바로 그 일이

잇딤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R은 민수기 25장에서 출애굽 일세대가 자행하였던 우상숭배를 J의 이야기와 출 20장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용어를 빌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출애굽 일세대가 이집트를 떠난지 삼개월이 되던날 시내 광야에 이르고,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친 세째 날 하나님은 첫번째 십계명을 주었다(출 19 이하).

לא יהיה לך אלוהים אחרים על פני, לא תעשה הלך פסל וכל 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לא 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출 20:3-5a)

ויאכל העם וישתחוו לאלוהיהן (민 25:2b)

"나 외에는 다른 신들 אלוהים אחרים 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는 첫 계명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준 두번째 계명은 우상들(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לא תשתחוה להם 는 것이었다(출 20:5a).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히브리어 להם이 가리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상' פסל과 '형상' תמונה이다. 그러나 3절과 4절을 병렬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우상'과 '형상', 이 둘은 곧 '다른 신들' אלוהים אחרים 이다(A. Phillips). 이스라엘은 바알 브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השתחוה לאלוהיהן (민 25:2). R은 잇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행음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십계명의 첫번째와 특별히 두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라는 것을 십계명의 첫번째 명령에서 나오는 '다른 신들' אלוהים אחרים이라는 말을 '그들의 신' אלוהיהן이라는 단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두번째 명령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השתחוה 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R은 개별적으로 있었던 J의 잇딤에서 바알브올에 가담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브올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동침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P의 전통(민 25:6-19)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R이 J와 P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표현하는 방법(Terminology, Phraseology)은 다를지라도 두 이야기 모두가 '이방 여인과의 동침'이라는 공통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고, '(바알)브올'이라는 공통의 소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R은 이 두 전통을 하나로 엮으면서 누구보다도 아론의 손자이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 속한 제사장들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론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확정시키고 이들의 손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시작: 다시 세우는 율법

민 26:2a α 는 마치 민 1:2a α 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남자 회중의 수를 통계 내도록 한다 **שאו את ראש כל עדת בני ישראל**. 민수기 1장과 26장의 시작 부분인 위의 두 구절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출애굽 일세대가 본격적인 광야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인구 통계를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출발시키며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는 1장의 인구 조사와는 다른 것들이 있다. 민수기 26장의 역할은 단순히 이미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실시했던 인구조사를 25장의 재앙 이후에 갱신된 새로운 인구에 대한 정보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내산에서 처럼 모압 광야에서 새 세대를 시작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R이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들의 유산을 나눌 때에 땅 분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B.A. Levine).

첫번째의 다름은 지도력의 교체이다. 출애굽 일세대인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한 민수기 1장과는 달리, 26장에서는 출애굽 일세대인 모세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인구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다(민 26:1,63-65). 이와 같은 세대교체의 이야기는 민수기 26장을 감싸안고 있다.

A 인구 조사 시작 (아론에서 엘르아살로의 세대 교체: 종교)	26:1-4
B 열두지파의 인구 계수	26:5-62
A' 인구 조사 마침 (모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로의 세대 교체: 지도력)	26:63-65

위의 구조에서 보듯이, 인구조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과거에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인구를 계수하였다(민 1:3). 그러나 민 26:1-4에서는 인구 조사의 주체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바뀐다. 인구 조사의 시작을 알리며 종교 제의의 지도자가 출애굽 일세대인 아론에서 새 세대인 엘르아살로 바뀌는 것을 R이 강조하는 것이다. R의 의도는 인구 조사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드러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출애굽 일세대 가운데 두번째 인구계수에 들어간 단 두명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모세로부터 이 둘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R의 의도적인 본문 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R의 눈에는 이것들 만으로는 새 세대의 출발을 알리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R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여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라는 지형적인 배경 (Topography)을 한 단위로 '율법'이라는 틀을 구조로 삼았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십계명)과 제의법을

주고(출 20-레 7), 그 제의법을 지켜나갈 적법한 제사장을 선임한 후(레 8-10), 인구를 계수하고(민 1-4), 광야로 들어선 것처럼, 새로운 세대도 출애굽 일세대에게 주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출애굽 일세대가 겪었던 광야에서의 삶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민수기를 그 전환점으로 삼았다.

A 율법의 수여	출 20-레 7
B 제사장 선임	레 8-10
C 인구계수	민 1-4
D 광야	민 5-25
C' 인구계수	민 26:1-62
B' 제사장 및 차세대 지도자 선임	민 26:63-65
A' 율법의 수여	민 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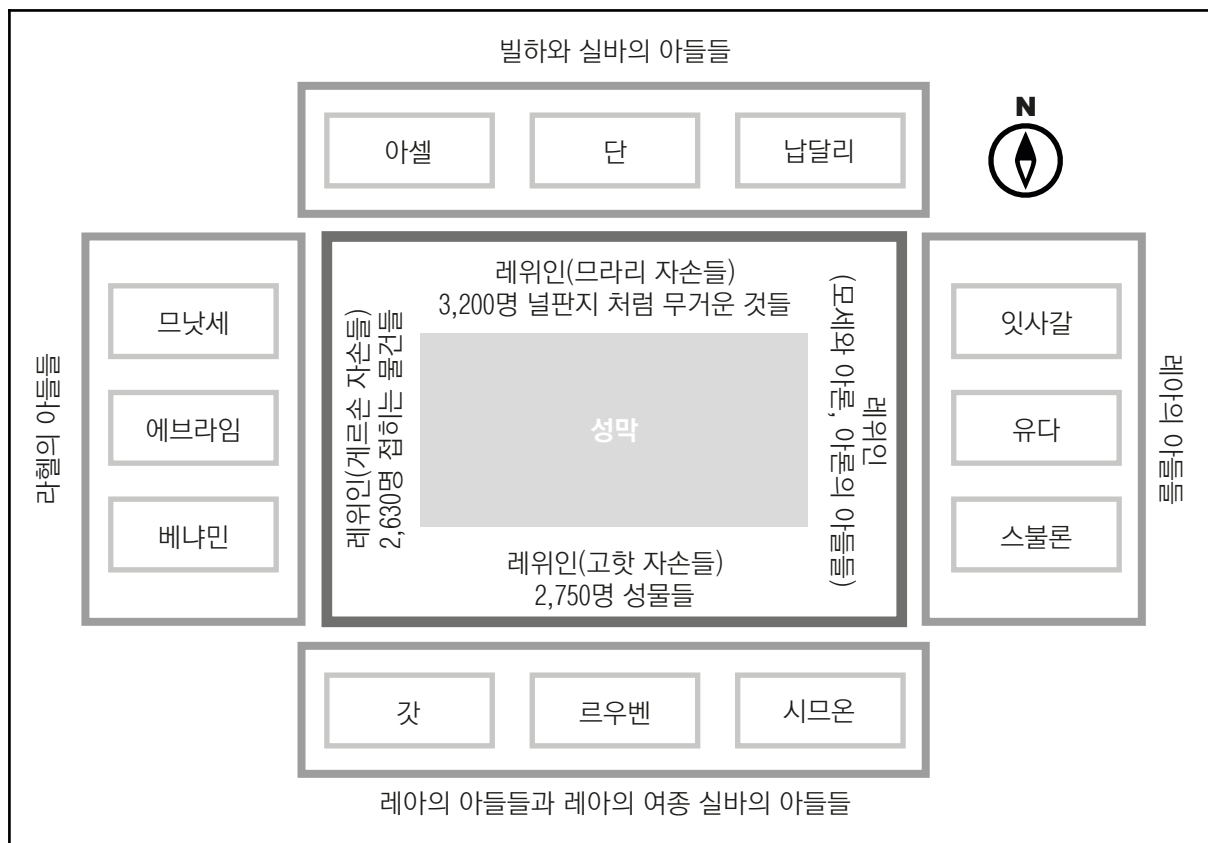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새로운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차세대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갈렙과 여호수의 이야기 이후에 마치 시내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 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주게된다(민 27-30). 이 율법은 이전에는 몰랐던 전혀 새로운 율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전의 율법들의 문제점들을 보충하는 율법도 아니었다. 오히려 다시 율법을 받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율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지키지 않던 그 율법을 다시금 갱신하며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민수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에둘러 보여주고 있다. 뒤 이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들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은 출애굽 일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래로 민 25장에 이르기 까지 겪어야했던 내리막길을 극적으로 뒤집고 다시 올라가는 반등의 역사이다.

민수기의 편집자(R)가 설교자들에게 주는 교훈

2세기 유대교 랍비인 아키바 אַקִיבָּא는 아가서와 민수기를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들이라고 불렀다. 아키바는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목가적인 사랑이야기로 그린 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형태가 민수기라고 평가한다. 아키바의 눈에는 아름다운 밀월만이 사랑의 표현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꾸짖는 것을 사랑이라고 바라보았다. 출애굽의 한 세대를 광야에서 마치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은 단순히 '세대 교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수기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키바의 성경 이해이다.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민 10:10까지의 이야기는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인구의 조사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에 대한 조사였다. 603,550명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진군해 나아갈 이스라엘의 앞 길에는 그야말로 겁낼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잘 짜여진 진영, 체계적인 군사 조직, 그러나 제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 기쁨에 술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레 10),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기쁨에 넘친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분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 11:1-14:45; 15:32-36; 16:1-17:13; 20:1-13; 21:4-9; 25:1-18). 그러므로 출애굽한 일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교체되는 민수기

26장 이후의 이야기는 희망의 기대감이 현실에서 좌절로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첫번째로 이 교과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아무리 훌륭한 군대 조직 편성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여전히 가지고 싶으나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는 불평,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비방과 도전,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빌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을 때에 이스라엘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기는 하였다(민 10:11). 그러나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은 구름이었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군대(하드웨어)였다. 결국 밤이 되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지키고 인도하던 낮의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불이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을 벌하는 불로 바뀌게 되었다(민 11:1-3).

두번째로 이 교과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불과 얼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출 20-레 7),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레 8-10), 군대를 조직할 때까지만 해도 (민 1-4) 앞으로 펼쳐질 광야에서의 삶은 '희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삶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올무가 되기 시작했다(출 20:10; 34:21; 민 15:32-36). 율법과 계명에서 금지한 이방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그 여인들을 따라 시작하는 우상숭배는 결국 출애굽 일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일세대의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희망찬 시작과 암울한 현실의 괴리 사이에는 율법 준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세째로 이 교과서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새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광야의 때에 거룩한 장소는 성막이고,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들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지리적으로 시내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이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만든 거룩한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거룩한 사람)이 있었다. 이 둘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영역들에 대해서 새 세대가 알고 있는 바이다. 하나님은 새 세대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령한다. 이미 이 거룩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출애굽 일세대에게 명령한 바가 있지만(레 23,25장), 유형의 장소와 사람과는 달리 이제부터 지켜야 할 무형의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금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의지하며 살 것으로 요구한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전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민수기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뜨거운 신앙 경험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희망찬 기대도 잠시 뿐,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꼭 '죄'라는 틀 안에서 정의할 수 없지만 밀도 끝도 보이지 않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의지와 기대와는 관계없이 실망과 실패, 그리고 좌절이 반복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광야(민수기)가 주는 대답은 *ab initio* "from the beginning"이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원리이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대충 사람들을 꾸러 나가시며 억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마치 출애굽 일세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준 율법과 계명은 이전 세대와 다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본 원리이면서, 동시에 매번 강조하지 않으면 금새 잊고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 뿐 아니라, 예언자들의 책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준수,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민수기는 쓰러진 오늘의 교인들과 쓰러질 내일의 교인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라고 소리친다.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문헌들

- Knierim, Rolf P.; Coats, George W. *Number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4.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 Leveen, Adriane. *Memory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Numb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Levine, Baruch A. *Numbers 21-36*. The Anchor Bible 4A. New York: Doubleday, 2000.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oore, Michael S. *The Balaam Traditions: Their Character and Development*.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113. Atlanta, Georgia: Scholar Press, 1990.
- Nelson, Richard D. *Deuteronomy: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Olson, Dennis T.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Brown Judaic Studies 71. Chico,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 Phillips, Anthony. *Ancient Israel's criminal Law: A new Approach to the Decalogue*. Basil: Oxford, 1970.
- Sarna, Nahum M. *Exod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Vervenne, Marc. "The 'P' Tradition in the Pentateuch: Document and/or Redaction?" Pages 67-90 in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Edited by C., Brekelmans; Lust, J.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0.
-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Translated by Black, Sutherland; Menzies, Allan. Chiago: A&C Black, 1885.
- Wiesel, Elie. "Nadab and Abihu." *European Judaism* 30[2] (1997): 18-28.

מדרש רבה: במדבר

קויפמן, יחזקאל. תולדות האמונה הישראלית : מימי קדם עד סוף בית שני. ירושלים: ביאליק, תשל"ו.

목회자와 평신도가 민수기를 읽으며 도움이 되는 책들

- 데니스 올슨. 민수기. 현대성서주석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 오경 2.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매튜헨리. 매튜헨리 주석: 민수기, 신명기. 매튜헨리 주석전집 3.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 왕대일. 민수기. 성서주석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왕대일.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유진 메릴. 민수기, 신명기. Bible Knowledge Commentary 3. 서울: 두란노서원, 2002.
- 이한영.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 설교를 위한 민수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9.
- 정중호. 민수기1. 새로운 해석과 설교를 위한 한국 구약학 총서 4.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 필립 J. 붓드. 민수기. WBC 성경주석시리즈 5. 서울 : 솔로몬, 2004.